

당의 호소따라 가을걷이전투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 총집중하자

종산경쟁에서 찾은 목표수행방도

10월의 대추전을 로컬적성과 패권 및 인력 불라는 열의안고 속천군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가을걷이시작부터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이들은 강령이 가을걷이를 끝낸 데 이어 10여일동안 벼가을걷이를 결속할 기세도 높고 실적을 올리고있다.

이 성과는 군일군들이 농사결속을 잘할 때만 가능한데, 당의 호소와 조소를 높이 받들고 가을걷이전투에서 사회주의종산경쟁의 불꽃을 세차게 지펴올리기 위한 사업을 방법론있게 짜고든 결과에 이룩된 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총총에서 전열단위를 창조하고 모든 단위를 전열단위로 꾸려나가기 위한 결정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여야 합니다.》

일군들은 올해 가을걷이를 적기에 일군으로 끝내는 데서 사회주의종산경쟁을 활발히 벌리는 사업을 특별히 중시하였다. 당의 요구대로 경쟁열풍을 세차게 일으키고 대추의 정신향을 최대한 높이기 위하여 높은 가을걷이전투목표를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

사실 가을걷이를 지난해에 비해 앞당겨 끝내기 위한 문제를 가지고 토론할 때까지만 하여도 일군들은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였다. 지난 시기에 비해 올해의 가을걷이전투가 더 좋아진다고, 로력이 보충된 것도 없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뜻있는 올해에 인민생활향상에서 전진을 가져올 때만 경쟁하는 원수님의 승고한 뜻을 다시금 새겨들고 기어이 계획된 날짜에 가을걷이를 전부 끝낼 결의를 다졌다.

일군들은 밤이 깊도록 뛰면서 지난해 일부 농장들의 농사결속에서 나타난 경험과 교훈을 분석하였다.

그 과정에 어떤 농장들에서는 계획된 날짜보다 가을걷이를 3~5일간 앞당겨 끝냈는데 일부 농장들에서는 그렇지 못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구체적으로 따져본 결과 가을걷이 조직사업에서도 차이가 있었지만 사회주의종산경쟁을 어떻게 실시하고 싸고들었는가에 문제가 있었다. 사회주의종산경쟁이 농업근로자들의 정신향을 최대한 높이기 위한 경쟁이 아니라 동이러고 볼 때 이것은 사상적인 문제였다.

바로 이 사업을 중요한 정책적 문제로 보고 받아들이던 단위에 있는 성과가 이룩되었지만 실무적으로 대한 단위에서는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없었다.

일군들의 사업에서

당의 뜻대로 경쟁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키는데 목표수행의 기본원칙이 있다는 것을 자각한 일군들은 농군경쟁에서 경쟁조직을 잘 짜고들도록 머뭇거리지 않았다. 그것은 경쟁조직을 잘 짜고들도록 머뭇거리지 않고 전열단위를 정하고 모든 단위들에서 그 단위를 따라 앞서도록 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사회주의종산경쟁이 실질적으로 가을걷이전투를 힘있게 추동하도록 한 것이었다.

이렇게 되면 모든 농장 농업근로자들이 선심을 가지고 이번 가을걷이전투에 달려들도록 할 수 있었다.

가을걷이전투가 시작되자 온 군에 사회주의종산경쟁의 불꽃이 세차게 타올랐다. 모든 농장 농업근로자들이 경쟁에서 이겼다는 높은 승벽심과 열의를 가지고 일제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분조관리위원회에서 포전담당 책임제를 받아들인 데 맞게 사회주의종산경쟁을 대추의 열의를 더욱 높일 수 있게 조직한 것도 본분발산한 점이었다.

분조관리위원회에서 포전담당 책임제를 설정에 맞게 받아들인

데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농장들에서는 이 사업을 실속있게 하여 온을 내고있었다. 따라서 이것을 중시하는 원칙에서 경쟁을 조직하여 가을걷이전투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일군들은 농장, 작업반, 분조를 물론 농업근로자대표간경쟁이 힘있게 벌어지도록 그 방도를 찾아 실현해나갔다. 농업근로자들에게 하루작업정량을 알려주는 것과 함께 속도와 질을 다같이 평가하도록 하였다. 특히 일군들이 힘을 넣은 것은 분조계획수행을 놓고 농업근로자들에게 대한 평가수행을 정확히 하도록 한 것이었다.

이렇게 되면 농업근로자들은 자기가 맡은 일을 끝내고 남을 도와주는 열의가 더욱 높아져서 가을걷이전투에 넘쳐나고 있었다.

그들은 사회주의종산경쟁을 힘있게 벌려 풍년나날을 높이 쌓는 것으로 10월의 대추전투에 몇몇이 들어설 일년안고 가을걷이를 추진하는 힘에서 애나갔다. 결과 가을걷이를 계획된 날짜에 무조건 끝낼 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여가고 있었다.

이들의 사업은 대추의 정신향을 높이기 위한 사회주의종산경쟁 방법론을 가지고 진행한 단에서 나타나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윤 용 호

강령군 일군들의 사업에서

가을걷이적기보장을 위해 무엇을 중시하고 어디에 힘을 넣어야 하는가. 강령이 가을걷이시작부터 높은 실적을 올리고있는 강령군 일군들의 사업이 그에 대한 대답을 주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농업증산의 열쇠는 농업부문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정신력을 적극 발동시키는 데 있습니다.》

군일군들은 가을걷이적기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분조의 하나를 분조관리위원회에서 포전담당책임제의 생활력을 발양시키는데서 찾고 이 사업을 방법론있게 내밀었다.

주목되는 것은 집단주의의 힘을 높이 발휘하여 가을걷이를 적기에 끝내도록 한 것이다.

그렇지만 한 계기가 있었다.

모내기철에 군에서는 포전담당책임제가 실시된 데 맞게 모든 농장원들이 자기 포전은 자기가 맡아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일출수가 빠른 농장원들은 별일없었지만 그렇지 못한 농장원들로 하여 모내

기를 적기에 보장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도와주어야 모내기를 적기에 끝낼 수 있었다.

이것을 놓고 군일군들이 찾은 교훈이 있었다.

아무리 좋은 안도 그 수행을 위한 방법론을 바로세우지 않고 내밀면 한갓 계획이나 호소밖에 되지 않는다.

이 교훈에 기초하여 군일군들은 포전담당책임제의 생활력이 발휘되자면 집단주의적방법으로 가을걷이를 내밀어야 한다는 데로 의견을 합쳤다. 그리고 가을걷이를 적기에 끝내기 위한 방도를 내놓고 실현하도록 하였다.

모든 분조에서 잘 익은 포전별로 가을걷이차별을 정하고 로컬적성을 짜고들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분조장들은 작업조들을 다시 편성하였으며 포전담당자별 가을걷이일정계획도 구체적으로 세웠다. 여기서 힘을 넣은 것은 작업조들 설정에 맞게 꾸민 것이다.

군일군들은 농장일군들과 농장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 2~3세대씩 조직하도록 하였다. 특히 청년들들과 여성로력들을 잘 배합하여 작업조를 꾸렸다.

이렇게 하니 농장원들의 생산의욕이 더욱 높아지기 시작하며 가을걷이실적이 올라가게 되었다. 읍면작업에 참가자를 적극 리용하도록 짜고든 작전도 좋았다.

본사기자 정 성 일

백두삼천리에서 감자수확 시작

백두삼천리에서 감자수확이 시작되었다.

군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자방한 로컬적성물과 안고 10월의 대추전투에 몇몇이 들어설 열의에 넘쳐 감자수확전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성과를 거두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감자농사에서 량강도가 앞장서야 하며 여기에서도 대추전투에 전열의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군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대추단군5호농업경영위원회에서는 군의 모든 농장들에서 기계화수단을 총집중하여 일제히 감자수확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작전을 짜고, 군5호농업경영위원회를 비롯한 군급기관의 일군들이 농장들에서 나가 농업근로자들과 함께 트랙토르와 감자종합수확기를 타고 대추를 감자수확전투에 불려오기 고있다.

군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군의 모든 농장들에서는 포전별, 날자별감자수확계획에 따라 기계수단을 리용하여 감자수확을 전이던 다음 감자종합수확기에 앞전에 들어가 원만한 작업할 수 있게 발머리들을 먼저 수확하도록 하였다.

감자수확전투에 참가한 트랙토르운전수들과 감자종합수확기운전수들은 매일 작업전과 작업후에 분진기계를 대한 정비를 힘있게 하여 만부하를 걸어 감자개기실적을 부쩍 높이고있다.

대추전투에서 감자수확 시작

대추전투에서 감자수확이 시작되었다.

공공에서는 감자수확과 가을을 위한 전투를 벌인다는 짜고들이 수확에 동원된 자방자들의 머무름시간을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게 하였다.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 3대형중소차들을 지금 감자수확에서 또다시 최고생산년도를 돌파할 목표밑에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당장전 일출을 앞두고 올해 감자수확을 빛나게 해줄 수 있도록 이머나당에 총정의 보급을 드릴 것이라는 일년안고 명철한 선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원만한 기세로 한여는 군이 부끄럼을 겪지 않도록 하였다.

글 및 사진 특파기자 전 철 주

분조의 역할을 높인데 성과의 비결이 있다

분조의 역할을 높여야 농업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킬 수 있다. 천리마구역 강선협동농장에서 가을걷이실적을 높이기 위한 집단주의의 힘을 높이 발휘하여 가을걷이를 적기에 끝내도록 한 것이다.

이것을 놓고 관리위원장 정정수동무는 생각을 깊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좋은 가을걷이에서 농가계가 차이를 보이는데, 하지만 농가계를 다루고 농사를 짓는 농장원들의 열의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았는가. 분조의 역할을 높여야 농업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한 생각에 원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 관리위원장은 이 사업에 보다 구체적으로 짜고들기로 하였다.

우선 포전담당책임제가 실시된 조건에 맞게 가을걷이일정계획을 분조의 특성에 맞게 잘 세우도록 하였다.

지난 시기 가을걷이일정계획은 작업반장들이 세웠다. 그러나 가을걷이도 폭적이 잦아진 포전순서대로 작업반이 집중적으로 진행하였다. 그리고 벼단운반과 낱알리기도 작업반장이 조직하고 있었다.

이것은 분조의 실정에 맞게

천리마구역 강선협동농장에서

가을걷이실적을 높이기 위한 집단주의의 힘을 높이 발휘하여 가을걷이를 적기에 끝내도록 한 것이다.

이것을 놓고 관리위원장 정정수동무는 생각을 깊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좋은 가을걷이에서 농가계가 차이를 보이는데, 하지만 농가계를 다루고 농사를 짓는 농장원들의 열의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았는가. 분조의 역할을 높여야 농업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한 생각에 원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 관리위원장은 이 사업에 보다 구체적으로 짜고들기로 하였다.

우선 포전담당책임제가 실시된 조건에 맞게 가을걷이일정계획을 분조의 특성에 맞게 잘 세우도록 하였다.

지난 시기 가을걷이일정계획은 작업반장들이 세웠다. 그러나 가을걷이도 폭적이 잦아진 포전순서대로 작업반이 집중적으로 진행하였다. 그리고 벼단운반과 낱알리기도 작업반장이 조직하고 있었다.

이것은 분조의 실정에 맞게

청산리 혁명사적관 창립 40돐 기념 보고회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 전달

청산리혁명사적관 창립 40돐 기념보고회가 22일에 진행되었다. 보고회에는 강양도 남포시당위원회 책임자, 청산리혁명사적관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 강사들이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보고회에서는 창립 40돐을 맞는 청산리혁명사적관의 통상을 정중하고 겸손하게 하여주시었다. 주체혁명위업증수의 중대한 역사적시기에 혁명전승교양이 가지는 중요성과 의의를 깊이 통찰한 당중앙은 혁명사적관앞에 나서는 과업과 방도를 명시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평도하였으며 창립기념일을 맞는 청산리혁명사적관 일군들과 농업근로들에게 크나큰 인정을 베풀어주었다.

청산리혁명사적관은 주체 64(1975)년 9월 22일에 성립된 후 지난 40년동안 영광의 땅에 깃든 백두산계곡의 명승에 깃들여 세워진 혁명사적관과 근로자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 영예로운 임무를 현명하게 수행하였다. 사적관의 일군들과 농업근로들은 혁명사적사업에 더욱더 깊이 계속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청산리를 찾으신 어머니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이 깃들여있는 영광의 땅에서 농촌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전진적인 본보기를 창조하도록 현명하게 이끄셨다. 청산리에서 천리마

기술자, 기능공명단에 비끼는 창조의 숨결

기술자, 기능공명단에 비끼는 창조의 숨결

청진스마트공장에서의 주의를 끈 것은 뛰어난 기술자, 기능공명단이다.

몇몇명까지만 해도 이 공장에는 기술자, 기능공들이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오늘 공장의 종업원들은 거의 다 기술자, 기능공명단들이었다. 이 사실은 놓고서 이곳 초급당위원회가 기술혁명의목표수행을 위한 당정치도를 얼마나 품을 들어 진행해왔는가를 잘 알 수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포전담당책임제 생명을 불어넣고 우리 식의 현대화, 정보화를 적극 다그치며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과학기술수준을 높이고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모든 사업을 활력있게 밀고나가야 합니다.》

초급당위원회가 2중3대 혁명공을 개행하기 위한 결의목표를 세우면서 기술자, 기능공들을 중시하여 현실의 요구에 맞게 생산을 높이고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기술혁명의 현실의 요구에 맞게 생산을 높이고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기술혁명의 현실의 요구에 맞게 생산을 높이고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초급당위원회 사업에서

초급당위원회 사업에서

초급당위원회가 대추전투의 결의목표실현에서 중시한 것은 다음으로 행적이었다. 그는 도에 한 원료를 가지고 부름진주업생산방법을 연구진행한 높은 목표를 세웠다. 아직 그 길은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어려운 탐구의 길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때까지 알려진 연유나 가스소성법에 의한 부름진주업생산공정이 아니라 부름진주업생산공정에 대한 후방성도 한 계단 더 높이 끌어올렸다.

공장은 얼마전에 2중3대 혁명공을 기점으로 수혜받는 영예를 지니게 되었다.

이렇듯 대추전투의 열풍속에서 모든 종업원들이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고 있는 것이다.

본사기자 채 인 철

효과적인 비이삭말리우기

효과적인 비이삭말리우기

가을걷이시작되면서 이것이 온을 내고있다.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벼가을걷이전투에 내밀면서 도 잘 마른 이삭을 묶어 제때에 동가리며 찌고있다. 한알의 낱알도 잃어버리지 않고 나라밖에도 가득 채우려는 이곳 일군들과 농장원들의 애국의 마음이 발휘된 결과 농장에서는 가을걷이에서 낱알실적을 크게 높이고있다.

본사기자



백두삼천리에서 감자수확이 시작되었다. (본사기자 윤용호)

승냥이 미제와 반드시 결판을 내야 할 천만군민의 멸적의 의지

반제반미교양, 계급교양의 거점 신천박물관을 찾아서(3)

야수들에게 있어서 인간살육은 하나의 도락이었다

인류는 오늘날 제2차 세계대전시기 히틀러나치스들에 의해 감행된 인간살육만행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미제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신천박물관에서 감행한 학살만행은 그 잔인성과 수법에 있어서 히틀러나치스들의 만행을 훨씬 능가하는 것이었고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신천박물관에서 벌어진 극악한 인간도살행위, 그것은 미제의 야수성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미증유의 세계적 참변이었다.

위대한 명도 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신천군에서 감행한 대학살만행은 미제침략자들이야말로 인간살육을 도락으로 삼은 선조들의 야수성과 잔인성을 그대로 물려받고 중세기적인 인종론으로 길들여진 20세기의 식인종이며 살인마라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시간은 마치도 60여년전의 그날로 되돌아간 듯 했다. 너무도 생생하고 끔찍한 광경이 전시실-10에 펼쳐져 있었다.

벽제와 바닥에 랑자한 피자욱, 처녀를 바둑으로 동여맨 채 그의 머리에 대못을 박고있는 미제야수들...

《당시 문화원 화살탄 부락민 청취원장이었던 양용녀는 1950년 10월 20일 구월산인민유격대에 연락을 가진 도중 불행하게도 원수들에게 체포되었습니다. 양용녀에게서 연락내용과 조직의 비밀을 알아내려고 악착한 고문을 들이대던 미제살인귀들은 18살밖에 안되는 그의 정수리에 대못을 박아 무릎까지 학살하는 치명적인 만행을 감행하였습니니다.》

참관자들은 강사의 해설을 들으며 양용녀에게 치명적인 대못을 저지르는 미제야수들을 형상한 모습을 살펴보았다.

《그것은 합상이라기보다 되풀이된 역사이고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 현실이었다.》

심장이 멎는 듯 하고 온몸이 쭈뼛드는 것 같은 참상 앞에서 참관자들 누구나 치를 떨었다. 전시실 여기저기에서 원수에 대한 증오와 분노의 체침이 추상같이 울려나왔다.

《저놈들은 사람이 아니다. 어떻게 산 사람의 머리에 대못을 박아 죽일 수 있는가.》

《복수를 해도 그저 할수는 없다. 제놈들이 저지른 만행을 뼈저리게 후회하도록 할망정 죽이고 씨족까지 말려죽여야 한다.》

강사는 전시실의 한 벽면에 주연이 걸린 그림들을 가리키며 원수들은 마치도 누가 더 사람에게 고통을 주다가 죽이는가를 경쟁이라도 하듯 사람의 허리를 삼날로 내리쳐 두동강내고 온몸을 불로 지저지 못해 살점을 빼먹고 피까지 빨아먹는 등 애국자들과 인민들을 인간의 두뇌로써는 도저히 생각할수 없는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고문학살했다고 분노에 차서 이야기하였다.

그림들을 보느라니 미제원수놈들이 신천박물관에서 감행한 학살만행은 단순한 살육이 아니라 야만들의 도락이었다는 사실이 다시금 가슴을 치는 것이었다.

미제살인귀들이 신천박물관에서 우리 인민을 어떤 야수적인 방법으로 학살했는가를 아는 것은 전시실-11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었다.

전시실에는 탈구지 한재가 실물 그대로 전시되어 있었는데 그 뒤로 전시관정미공장 로동자 주조원이 원수놈들의 손에 어떻게 학살되었는가를 생생한 화폭으로 보여주는 반경화가 펼쳐져 있었다. 당시 인간살육에 환장한 미제와 계급적원수들은 사람에게 최대의 고통을 줄수 있는 온갖 야수적인 살인방법을 다

고안해냈다. 원수놈들에 의해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손에 잡히는 모든 것은 그대로 고문도구로, 살인공기로 변화하였다.

원수들은 정미공장설비들을 비밀장소에 옮기고 뒤늦게야 후퇴의 길에 올랐던 주조원을 체포한 뒤 술한 사람들을 모아놓은 자리에서 두개의 소말구지를 반대방향으로 내몰아 그의 사지를 찢어죽이는 귀족같은 만행을 감행하였다. 원한의 피자욱이 아직도 마르지 않은듯싶은 그날의 탈구지, 아마도 그것은 해방의 기쁨속에 난생처음 제방에서 지는 곡식이고 마린한 애국미를 기념성상기념품에 지는 영광으로 실고가던 그 탈구지는 아닌지...

이 땅의 행복을 송두리째 빼앗으려고 고쳐된 미제살인원수놈들에 대한 끊어오르는 증오심을 안고 반경화를 돌아본 참관자들이 걸음을 옮기려 할 때였다.

앞선 참관자들속에서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그곳에는 당시 신천군 초리면에서 감행한 미제야수들의 극악한 만행을 보여주는 합상이 전시되어 있었다.

공명 불이든 초리면 종산인민학교 유해유교장의 몸을 통째로

타고앉아 그의 머리를 통째로 쪼개고있는 미제승냥이놈. 깊숙이 쪼개진 머리에서 짐뿔은 피와 함께 뇌수가 흘러나오는 광경은 참으로 하늘도 땅도 뭉뚱질 참상이 아닐수 없었다.

두주먹을 불끈 들어올린 너무도 끔찍하고 몸서리치는 만행 앞에서 격분을 금치 못하는 참관자들에게 강사는 이렇게 말하였다.

《미제원수놈들은 유해유교장이 학생들을 공화국의 상상으로 교육교양했다는 단 하나의 이유로 그를 수많은 학부형들과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저렇듯 타고앉아 그의 머리를 통째로 쪼개고있는 미제승냥이놈. 깊숙이 쪼개진 머리에서 짐뿔은 피와 함께 뇌수가 흘러나오는 광경은 참으로 하늘도 땅도 뭉뚱질 참상이 아닐수 없었다.》

초리면 월산리의 리옥봉녀성에 대한 학살만행도 그 광범하고 잔인한 만행의 야수성을 다말성은 다말바 있었다.

놈들은 당시 초리면인민위원회 위원장 박석선의 아버지를 붙잡아 다코와 귀를 쇠줄로 꿰어 마을로 끌고다녔

는데 이에 대해 항거한다고 하여 박석선의 아내인 리옥봉녀성에 달려들어 짐승도 낫을 붙힐 잔인한 방법으로 무참히 살해하였다.

전시실에는 두 미군놈이 리옥봉녀성에 달려들어 칼로 그의 젖가슴을 도려내는 모습이 합상으로 형상되어 있었다. 놈들은 그리고도 성취하지 않아 나중에는 그의 온몸을 휘발유를 뿌리고 불태워죽였다.

미제살인귀들이 신천박물관에서 인간살육을 하나의 도락으로 여긴 자료는 이뿐이 아니었다.

신천박물관의 전시실마다에는 도기로 사람의 각을 뜨고 태어난지 얼마 안되는 갓난아이를 새끼로 온몸을 동여맨채 뿔처럼 차던지죽여죽여 못을 흉흉히 박아놓은 관자에 사람의 알몸을 마구 굴러죽이는 등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은 수단과 방법으로 우리 인민을 학살한 미제와 계급적원수들의 범죄적 만행이 생동한 자료와 함께 전시되어 있었다.

《저는 지금껏 신천을 여러번 찾았지만 오늘 새로 일떠선 신천박물관을 참관하고보니 미제가

사람잡이를 도락으로 여긴 사실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정녕 미제야말로 우리의 한하늘을 이고 살수 없는 철천지원수이며 우리 인민의 백년속적입니다.》

이것은 참관의 길을 이어가던 황해제철연합기업소 단조직장 로동자 김병철동무가 자기의 격동된 심정을 마중하며 우리에게 한 말이다.

그만이 아닌 참관자들 모두의 얼굴에서 승냥이 미제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과 복수심을 읽으며 우리는 다음전시실로 발걸음을 옮겼다.

글 분사기자 리남호
사진 분사기자 강정민



《조선로동당 만세!》

인간살육의 피비린내가 아직도 그대로 숨배어있는 신천박물관에서 살인귀 미제승냥이놈들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다. 하지만 인민들이 심장에 안고 산 혁명적신념은 절대로 빼앗아갈수 없었습니다.

《조선로동당 만세!》

비록 육체는 불타죽을지언정 열매된 불에 타도 끝음을 잃지 않는 참대처럼 일련단심 우리 당만을 굳게 믿고 따르는 신천의 한 주인이 최후의 순간에 남긴 신념의 글말!

위대한 명도 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 당사상사업에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입니다.》



신념이 없는 인간에게 절제와 지조가 있을수 없다. 바람따라 돛을 다는 것이 신념이 없는 인간의 생존방식이다.

하지만 신념을 지닌 사람은 원수들앞에 무릎을 꿇고 사느니를 가장 큰 수치로 여기며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혁명적절제와 지조를 굽히지 않는다.

하기에 신천박물관을 찾은 사람들은 미제의 살인만행을 성토하는 여기서 두주먹을 으르러지게 물어잡으며 불굴의 신념을 역계해 버린다.

이 땅에서 원수들을 씨도 없이 쳐부시고 인민의 탁신 사회주의꽃동산 꾸러놓는 날 우리 다시 여기서 살아 일어 나리라 다시 일어나 부르고부르리라

우리의 진리이며 우리의 행복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일성장군 만세!

조선로동당 만세!

이것은 창작실의 원고지우에 띄어진 시가 아니다. 어느 화려한 국장무대에서 낭송된 시는 더욱 아니다. 사랑하는 산천과 고별하는 마지막 시각 시인 강승호의 남긴 심장의 체침이다.

조선로동당원들은 신천의 곳곳에서 벌어진 피의 살육장에서 자기의 혁명적신념을 굽히지 않았다.

신 신천군 가산면 너평위원장 김치선의 최후도 그것을 잘 말 해준다.

《제놈들이 나를 죽일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김일성장군님이 계신다. 미제승

냥이놈들이, 네놈들은 우리 로동당원들을 어떤 힘으로도 굴복시키지 못한다.》

원수들은 그 어떤 고문에도 굴하지 않는 그에게서 조직의 비밀을 훑아내려고 사탕하는 어린 딸애를 끌어와 갖은 희유와 위협공감을 다 했다.

그때 그는 원수들의 낯빛을 향해 추상같이 외쳤다.

《제놈들이 이라고 내가 마음을 굽힐줄은 아니다. 나는 로동당원이다. 조직의 비밀을 팔의 생명과 바꿀수 없다.》

원수들의 총구자 자기의 가슴을 겨누는 그 순간에도 태연자약한 모습으로 그는 군중들에게 미제원수들은 꼭 망한다. 승리의 신심을 굳게 가지고 끝까지 용감히 싸워달라는 당부를 남겼다. 조국의 평양만 매패와 우리

복수를 부르며 오늘도 잠 못 드는 령훈들

승냥이 미제의 피악을 만천하에 고발하는 령훈의 단죄장 신천은 사람의 물결이 그칠새없다.

분노로 이글거리는 대오가 교양미제의 계단을 뚫어오른다.

위대한 명도 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우리는 미제국주의자들과 한하늘을 이고 같이 살수 없으며 적들과는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한계단 또 한계단... 목격한 언덕어리라도 매단듯 무겁게 옮겨오는 발걸음들.

이마 계단을 오르는 사람들의 가슴속에 울며 밤나무를 화약창고와 교양미제사에서 새로 발굴된 형제조차 알수 없는 유해

가 영원히 아물지 않는 상처로 깊이 새겨져있어 더욱 괴랄한 것이다.

늑이 쓴 초미날이 박혀있는 얼음배와 정수리, 부스친 두개골이 부서진 팔다리며, 새출지 못한 총탄이 그대로 남아있는 여러 부분의 뼈들...

여기 한기장도 못미친 땅속도 그 어디에 처참한 유해가 묻혀있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서슴없이 더욱 무거워지는 발걸음들이고...

27개의 계단을 그렇게 오른다. 사백여미터와 백여미터이 모에 추모의 꽃을 지어 엮은 사람들이 화약창고를 바라보며 쉬이 걸음을 떼지 못한다.

이제라도 땅땀이 흘려내려오면 즉시 분봉에서 뛰쳐나올것

만 같은 몇몇이들, 어머니들을 찾고 또 찾는 어린이들의 애절한 괴울음소리, 사랑하는 자식들을 애대게 부르는 어머니들의 피하는 웨침이 들려오는듯싶은 화약창고.

먹을것을 찾아헤매는 천천만만한 그 어린이들이 휘발유를 물인줄 알고 마시게 하고는 타들어가는 가슴을 쥐어뜯는 애절한 모습에서 배락을 느낀 흠뻑 흘린 미제승냥이들.

밤나무를 채고던진 원상, 그것은 단지 찾고부르는 애절한 웨침만이 아닌 복수의 절규, 피의 결산의 절규였다.

그때서였다. 교양미제의 계단을 오르는 사람은 있어도 내리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고.

오늘은 있어도 내릴수 없는 계단!

분봉에도 들지 못한 목숨들이 하나의 지층을 이룬 원한의 땅 신천의 평원들이 피의 결산을 하기 전에는 영원히 복수의 파에서 내리지 말라고 이 땅의 수호자들의 걸음을 붙들어 세운다.

우리는 결코 해마다 증오의 나이플 세며 이들의 분봉에 못송이만을 놓지 않으리라!

총대로 미제와 기어이 최후결산을 하리라!

미제와는 한하늘을 이고 살수 없기에 복수의 맹세 온 밤나무를 안을 전경한다.

신천의 결산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에 사람들은 교양미제의 계단을 쉬임없이 오르고 또 오른다. 그것은 영원히 이어갈 복수의 길이다.

분사기자 오철훈

총대로 기어이 결산하라

총대로 기어이 결산하라



인간의 탈을 쓴 살인귀 미제를 이 땅에서 쓸어버리자

복수결의 모임터에서

망의 원앙리 밤나무! 누구나 이곳에 서있느라면 어머니들은 아이를 피하게 찾고 아이들은 어머니를 애대게 찾던 65년전의 그 가슴을 찢는 목소리들이 들려오는듯하다. 그러느라면 타르오는 불길속에서 고통스럽게 꺼져가는 어린 생명들을 바라보며 너털웃음을 짓던 미제살인악마들의 흉물스러운 낯빛이 보이는것만 같이 저도모르게 두주먹을 으르러지게 들어치게 된다.

그래서 복수의 열기로 더욱더 심장의 피를 끓여내는 신천박물관의 복수결의모임터이다.

여기서는 남녀노소 누구나 한몸이다. 군인도, 로동자와 농민도, 대학생과 나이던 소년단원도,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부들부들 떨리는 주먹으로 살인귀 미제를 단죄한다. 복수심으로 불타는 분노의 목소리로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수 미제침략자들을 소멸하자는 별적의 함성을 힘껏 터친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 인일시적후퇴시기 미제원수놈들에게 할아버지를 잃은 삼촌 파수동장 어금씨는 이렇게 말 하였다.

《미제승냥이들은 당시 새로 위원장이었던 저의 할아버지를 제로하여 악착스럽게 고문하다

가 그 자리에서 짐승도 낫을 붙힐 가장 야수적인 방법으로 무참히 학살하였습니니다. 미제야말로 우리 인민과 한하늘을 이고 살수 없는 철천지원수이며 대를 이어가며 모조리 무자비하게 쓸어버려야 할 악의 원수입니다.》

조선인민군 군관 조광철은 복수결의모임터에서 미저오르는 분노와 복수의 감정을 시에 담아 다음과 같이 격조높이 웨쳤다.

... 무엇보다 누를수 있던 말인가 병사의 가슴에 처하는 이 분노

은산군경찰소 일꾼인 김성호

라버린 제마저 총잡은 가슴에 화약으로 제워진다 가장 무서운 증오가 멸적의 불로 총대에 장약된다 ...

그는 백두의 혼혈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 단단의 싸움준비를 갖추었으며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이 또다시 침략전쟁의 불을 지르던면 영웅조선의 명예를 걸고 분대에게 세워 신천땅의 원한을 반드시 들고야말 불같은 결의를 다지겠다.

분사기자 서남일



